

『촌담해이(村談解頤)』에서 오락과 도덕의 상호 작용

류정월*

— <차 례> —

1. 서론
2. 지적 유희, 사회적 경종으로서의 음담
3. 논평에서 사회적 위계의 도래
4. 결론을 대신하여: 교훈과 유희의 상호 존속

<국문초록>

『촌담해이』 수재 이야기들은 대부분 음담 혹은 성소화로 분류되는데, 이 논문은 이런 류의 소화들이 어떻게 양반들에게 향유되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촌담해이』가 오락과 교훈을 모두 추구했다는 것은 『촌담해이』에 관한 일반론이다. 그것들은 이야기 본문과 논평에 각각 어떻게 배분되어 나타나며, 그것들이 결합함으로써 전체 텍스트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촌담해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대한 논평, 자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각각의 관계를 살피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이야기 본문을, 3장에서는 논평을, 4장에서는 자서를 대상으로 각각의 해석 층위(약호)를 분석한다.

『촌담해이』 이야기들에는 성적 관계와 속임수의 사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의 약호를 고려하면서, 『촌담해이』가 가지는 텍스트적 특징에 접근한다. 성적 관계를 표현하는 도상적, 물리적 약호의 사용에 주목하여 그것들이 해호화되는 과정, 그리고 트릭스터의 숨겨진 정체와 의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지적 유희가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음담에 사회적·경제적 층위(약호)가 함께 작동하는 경우 그 음담은 사회적 경종으로서 역할을 한다.

* 서강대학교

본문에서 트릭스터의 속임수가 서사를 추동하는 힘이었다면 논평에서는 트릭스터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양반의 본분을 강조한다. 이것은 이야기 본문에서 듀프였던 양반들의 위신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위계를 다시 세운다. 자서에서 강희맹은 모든 일에 이치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촌담해이』가 부정적 사건과 부정적 인물의 형상화가 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형상화의 자유는 텍스트 내에 오락적 요소를 얼마든지 끌어들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촌담해이』는 교훈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역설적으로 오락적·유희적 요소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교훈 속에서 유희가 도출되고 유희 속에서 교훈이 도출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촌담해이』라는 텍스트이다. 엘름슬레우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촌담해이』에서 유희와 교훈의 두 향은 양립가능하며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상호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촌담해이』는 음담을 말하지만 그것은 지적 유희로서 기능하며 사회적 경중을 울리기도 한다. 지적·사회적 측면이 있기에 음담을 말하고 향유하는 것에는 별다른 거리낌이 없다. 논평자는 이 음담을 도덕적 시각에서 정리한다. 음담을 교훈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기에 자서에서 본 것처럼, 음담의 향유는 ‘자득’의 능력이 있는 주체에게 도덕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된다. 그렇다고 『촌담해이』의 오락적 요소들이 교훈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항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논평이 배제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의 잉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오락, 도덕, 『촌담해이』, 음담, 논평, 자서, 약호, 속임수, 트릭스터, 듀프, 지적 유희, 사회적 경중, 위계 교정, 상호종속.

1. 서론

『촌담해이(村談解頤)』는 강희맹이 지은 소화집이다. 저자의 서문을 통해 직접 언급되고 있는 작품의 수는 9편이며 현재 원문이 전해지고 있는

작품 수는 10편 정도이다.¹⁾ 적은 수의 원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촌담해이』에 대한 연구는 소화의 서발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촌담해이』만을 다룬 독자적인 논문은 거의 없고²⁾ 이 또한 이본이나 서지학적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³⁾ 기존 소화집 연구들은 현전하는 작품 수가 많은 『태평화화골계전』이나 『명엽지해』, 『과수록』 등에 치중하고 있다. 작품 수가 많은 소화집들이 문학사에서 점유하는 의의를 인정하기는 하나 작품 수가 적다는 것이 본격적인 논의를 도외시하게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촌담해이』에 수록된 작품들에는 텍스트적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주로 음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각 편의 길이가 비교적 길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촌담해이』의 텍스트 내적 특징은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들-양반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들 이야기들은 대부분 음담 혹은 성소화로 분류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양반들에게 향유되었을까? 『촌담해이』의 이야기 소재가 되는 성적 모티프들이 오락적 요소들을 가진다고 할 때 이 오락적 요소는 양반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덕적 방식으로 가공될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의 관심사는 『촌담해이』에 나타난 오락과 교훈의 상호관계이다. 『촌담해이』가 오락과 교훈을 모두 추구했다는 것은 『촌담해이』에 관한 일반론이다. 개별 작품 가운데 오락성을 추구하는 것과, 교훈을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하나의 작품이 오락성과

-
- 1) 『村談解頤』의 이본과 작품수, 그리고 현전하는 작품과 자서의 관계를 검토한 것으로는 정용수 『사숙재 강희맹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5장을 참조할 것.
 - 2) 김현룡, 「촌담해이고」, 『한실이상보박사 회갑기념논총』, 1987, 정용수, 「촌담해이와 강희맹 문학」, 『成大文學』 27호,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157-174면.
 - 3) 유인본 『고금소총(古今笑叢)』에는 『촌담해이』 소화 중 10화(話)가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도서관본에는 4화만이 현전한다.

도덕성을 결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이 오락성과 도덕성을 결합했다고 볼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순한 메커니즘은 이야기가 오락성을, 논평이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과연 이야기 각편이 양분되어, 이야기에는 오락성이, 자서나 논평에는 도덕성이 배당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오락성과 도덕성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이것들이 결합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춘담해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대한 논평, 자서를 포함하고 있어서 각각의 관계를 살피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춘담해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전제들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춘담해이』는 몇 가지 층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층위는 이야기(본문), 두 번째 층위는 네 작품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에 대한 논평, 세 번째 층위는 가장 메타적 층위라고 할 수 있는 자서(自序)이다. 이 세 층위는 『춘담해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기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⁴⁾

본고에서는 소화의 의미에 관해 논할 때에는 본문과 논평을 모두 고려한다. 의미는 본문이나 논평 둘 중 한 가지에서 파생된다기보다는 이러저러한 본문과 이러저러한 논평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본다.⁵⁾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할 때의 장점은 본문의 요소

4) 소화에서 이야기에 나타나는 의미와 논평에 나타나는 의미의 차별성, 그것들의 충돌이 야기하는 웃음의 성격 변모에 대해서는 류정월, 「문헌 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417-443면 참고.

5) 논평이 이야기 본문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는 류정월, 「문헌 소화의 구성과 의미 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9-14면 참조.

들과 논평의 요소들을 비교하면서 논평이 본문의 요소들 가운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자서에 대한 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소화의 서발에는 소화가 차지하는 낮은 담론상의 위치를 보상하기 위해 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담론들이 필연적으로 삽입된다. 이 과정에서 소화의 서발은 하나의 투명하고 논리적으로 통일된 작품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담론들을 한 테두리에 묶고 있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텍스트가 된다. 본고는 『촌담해이』의 자서 역시 액면 그대로의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불투명한 텍스트로 볼 것이다. 본고의 2장에서는 이야기의 본문이, 3장에서는 논평이, 4장에서는 자서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

본고의 작업은, 『촌담해이』 수재 성소화에 드러나는 여러 해석의 층위(약호)들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성소화를 성욕의 억압과 해방이라는 차원에서만 읽는 것은 성소화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 성소화의 문화적 의미는 성소화가 야기하는 해석의 방향이 무엇이며, 각각의 해석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성적 층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층위들의 존재가 성소화의 수용과 향유의 특수성을 밝혀줄 열쇠가 될 것이다.⁶⁾

6) '성적 유머는 억압-해방에 기반한 이론이라고 연구되었다. 그리고 가장 우세한 이론은 성이 일반적으로 억압된 것이며 유머는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절하고 사회·윤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해방의 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Raskin, Victor, *Semantic Mechanisms of Humor*, Kluwer Academic Publishers Group, 1985, p.148.

2. 지적 유희, 사회적 경종으로서의 음담

유인본 고금소총에 현전하는 10편의 이야기 요약은 다음과 같다.⁷⁾

- ① 탐욕하는 기생 모란(牡丹)이 향생(鄕生)의 재물을 빼앗고 선비는 거지가 되다(<牡丹奪財>).
- ② 선비의 미첩이 고향에 갈 때 옥문을 모른다는 어리석은 종을 호행(護行)하게 했으나 도중에 첩과 종이 운우지락을 누렸다(<痴奴護妾>).
- ③ 인색한 주승과 영리한 상좌의 대화(<蓄父毒果>).
- ④ 금산사 주지가 음기(淫妓) 연화(烟花)의 껍에 봉변당하다(<繫頸住持>).
- ⑤ 중년 과부의 옥문에 쥐가 들어가고 그 집의 우직한 총각이 과부와 운우를 즐기다가 쥐에 물리다(<鼠入其穴>).
- ⑥ 부랑 소년이 의사라고 사칭하여 어리석은 처녀와 관계를 가진 후 정액을 받아 처녀의 고름이라고 하다(<稱醫取膿>).
- ⑦ 한 음녀가 코가 큰 사람을 유인하여 방사를 시작했으나 양물이 심히 작아서 그 코와 교접했다(<鼻勝於陽>).
- ⑧ 돈을 탐낸 부부가 과객이 부인을 겁탈했다고 관에 무고했으나 과객의 양물에 때가 잔뜩 끼어 있어 화를 면하다(<陽物有垢>).
- ⑨ 신승(神僧)이 정절 과부에게는 쌀을, 음탕한 과부에게는 양물을 주다(<神僧藁俵>).
- ⑩ 귀신이 준 양물이 총각으로 화해서 과부를 덮친다. 다른 과부가 그를 탐내 관가에 고발하다(<鬼棒變怪>).

이들 가운데 ③ <청부독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9편에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 관련 이야기이다. 이런 소재적 차원을 놓고 보면, 『춘담해이』의 남아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음담 혹은 성소화가 분명하다. 『춘담

7) 이야기 요약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춘담해이>참조

해이』 수재 이야기 가운데에는 성적 결합 외에 속임수가 등장하는 이야기도 여러 편 있다. <癡奴護妾>, <菁父毒果>, <繫頸住持>, <稱醫取膿>, <陽物有垢>, <神僧藁俵>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청부독과>를 빼고는 모두 성적 관계를 빌미로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 『촌담해이』 수재 이야기들에는 성적 관계와 속임수의 사용이 자주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석의 약호를 살핀다면, 『촌담해이』가 가지는 텍스트적 특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적 관계와 속임수의 사용이 모두 나타나며, 이야기와 논평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치노호첩>과 <모란탈재> 두 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치노호첩>을 보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애첩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루는 그 애첩이 친정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가겠다고 청하자, 선비는 음양의 일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 행차를 호위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너희들은 옥문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느냐?”

모두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중 한 어리석은 종이 있었는데, 겉으로만 순박한 듯했지 실제로는 교활한 자였다. 그가 갑자기 대답하였다.

“바로 양미간에 있습니다.”

선비는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기뻐하며, 즉시 그 녀석더러 애첩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 냇가에 이르자, 첩이 어리석은 종으로 하여금 안장을 풀고 잠시 쉬도록 하였다. 어리석은 종이 발가벗고 시냇물로 들어가 목욕을 하자, 첩은 그의 양말이 장대한 것을 보고 희롱하며 말하였다.

“너의 다리 사이에 있는 살 망치는 무슨 물건인가?”

“처음 생길 때에는 혹처럼 생긴 살이었는데, 점점 돌출[凸]되어 나오더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죠.”

“나도 날 때에는 다리 사이에 조금 패였던[凹]것인데 점점 깊어져 깊은 구멍을 이루었다. 너의 돌출[凸]과 나의 패임[凹]을 서로 물리면 즐겁지 않을까?”

그 둘은 마침내 더불어 사통하였다.(…下略…)⁸⁾

<치노호첩>에는 어리석음을 가장하여 주인을 속이는 트릭스터가 나온다. 이 텍스트는 일종의 트릭스터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트릭스터가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속임수를 쓰며 그 속임수가 어떻게 밝혀질까 하는 것이 서사의 진행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속임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dupe}이 필요하다. 이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해야만 속임수는 발생·성공하게 된다. 트릭스터담의 서사구조는 기본적으로 1) 배경-2) 모의-3) 속임수 사건-4) 속임수의 드러남-5) 평가 혹은 결과라는 다섯 단계의 변형, 즉 다섯 단계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⁹⁾

8) 有一士人 畜美妾 一日請歸寧 士欲得未識陰事者 護其行 呼群僕問曰 爾等知玉門在處乎 皆微笑不答 有一癡奴 外朴內黠 猝然對曰 正在兩眉間 士喜其不知 卽令護行 至一天邊 妾令癡奴 解鞍暫息 癡奴裸溪川中 妾見其陽壯戲之曰 汝脚間肉槌 是何物 奴曰 生時贅肉漸凸 以至於斯 妾曰 吾亦生時脚間微凹 漸成深穴 凸凹相啣 不亦樂乎 遂與之私. <痴奴護妾>

9) 바우만은 개인서사를 다루면서, 속임수가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조를 1.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2. 모의^{setup} 3. 속임수 사건 4. 속임수에 대한 불신 *discrediting of the fabricaton* 5. 평가^{evaluation}의 다섯 단계로 나눈 바 있다. Richard Bauman, *Story, Performance, and Ev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Chapter 3 참조.

트릭스터담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필자는 바우만이 정형화한 구조 가운데 많은 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다루는 것은 행위적 조작이 일어나는 장난^{practical jokes}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 단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모의는 트릭스터가 실제 계획을 위해 배치하는, 모든 언어적·비언어적 사

이 이야기에서 트릭스터는 종이며 듀프는 선비이다. 이야기의 진행이 트릭스터인 종의 입장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반면 듀프인 선비에게 사건의 진상은 숨겨진다. 이 이야기는 모의와 속임수 사건이 여러 개의 하위 서사 프로그램¹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PN1: 음양의 일을 모르는 척 하다

PN2: 양반의 애첩을 수행하다

PN3: 자신의 양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척 하다

PN4: 양반의 애첩과 사통하다

PN5: 무엇인가를 겁고 있는 척 하다

PN6: 양반에게 애첩과 사통한 사실을 엄폐하다

→ PN7: 양반의 애첩과 사통하고 양반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는 데 모두 성공하다

PN1, PN3, PN5는 모두 트릭스터인 종이 행한 모의 단계이다. PN2, PN4, PN6는 모의의 결과로 나타난 속임수 사건이다. 그러나 속임수 사건들은 모두 다음 단계의 서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들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PN1부터 PN6까지를 모두 PN7을 위한 모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건, 정신적·물질적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평가 부분은 이야기 자체에 대한 메타적 언급이 아니라 트릭스터(혹은 듀프)의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후일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0) 서사 프로그램(PN)이란 '대상의 위치 배치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인지된 접합 언술과 행위 언술을 끝과 끝에 놓는 기본 통합체이다... 작은 변형들은 하위 프로그램의 결과이며 큰 변형은 기본 프로그램의 사건이다.' 안 에노 저, 홍정표 역,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2003, 93-94면.

1) 배경에서 등장인물인 종에 대해 ‘겉으로만 순박한 듯했지 실제로는 교활한 자’라고 한 것은, 이 이야기에 종의 정체성 파악과 관련된 해석의 층위가 주되게 작동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것을 잠정적으로 ‘진실의 층위’라고 명명하자.

이 이야기의 2)모의 단계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 구성되어 있다. 성기에 대한 언급은 ‘살망치’, ‘혹처럼 생긴 살’, ‘다리 사이에 조금 패었던 것’, ‘깊은 구멍’, ‘돌출’, ‘패임’ 등의 단어로 대치된다. 성행위에 대해서는 돌출과 패임을 ‘서로 물리는 것’이라고 한다. 언어가 함축의미를 가지는 경우, 관습적으로 해호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직접적으로 성기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예컨대 ‘구멍’은 뚫어진 자리를 지시하지만 여기에서는 ‘여성의 성기’에 대한 도상적 비유로 쓰인다. 도상적 표현과 물리적 표현들을 통해 성적인 약호를 읽어내는 일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는다.¹²⁾

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속음수를 짜는 모의 부분에 도상적·비유적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트릭스터인 종은 자신이 처음 설정했던 ‘순박한 자’라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성기와 성행위를 묻는 질문에 일부러 물리적·도상적 표현으로 대답한다. 즉 언어의 교묘한 사용으로 본질을 숨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트릭스터인 종이 음양의 일을 안다는 것을 숨기고 있고, 그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도

11) 지시 의미와 함축 의미의 차이는 ‘한 뜻밖에 없는’ 의미화 *signification*와 ‘모호한’ 의미화 사이의 차이가 아니며 또 ‘지시적’ 의사소통과 ‘정서적’ 의사소통 사이의 차이도 아니다. 함축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함축적 약호이다. 이 함축적 약호의 특징은 심화된 의미가 관습적으로 기본적 *primary* 의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niv. Press, 1976, p.55.

12) 여기에서 생물학적 약호나 성적인 약호는 기본적인 약호-주로 도상적 약호들이나 물리적 약호-에 의존하는 하위약호 *subcode*가 된다.

상적 비유를 쓰기 때문에 이 소화에서 성적 층위는 이중으로 모호해진다.

4) 속임수의 드러남 부분은 선비의 재등장으로 시작한다. 선비는 자신의 첩과 종의 정사를 목격하고는 화가 나서 달려오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는 선비의 물음에 다시 종은 ‘배꼽에서 몇 마디 아래인 곳이 세로로 한 두 마디쯤 갈라져’, ‘폐매고 있다’고 대답한다. 성기와 성행위에 대한 도상학적·물리적 약호가 다시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배경에서 설명한 그의 인물됨과 다시 맞물리면서 선비를 완벽하게 속이게 된다.

5) 속임수에 대한 평가는 담화 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선비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다. 선비는 마침내 ‘너는 진실로 어리석구나’라고 말하기에 이른다. 종인 트릭스터의 일련의 행동이, 선비인 듀프가 마지막까지도 그 진상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속임수였음을 알려 준다. 선비가 속임수를 끝까지 간파하지 못한 이 평가 부분은 이어지는 논평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치노호첩>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성기의 명명과, 성적 약호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음담으로 읽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당시 음담이라는 장르적 인식을 가지고 향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음탕한 이야기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 유희의 성격이 강하다. 이 텍스트에서 주로 작동하고 있는 해석의 층위들, 즉 도상적 언어의 층위와 진실의 층위는 모두 일종의 지적인 유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도상학적 언어들의 해호화 방식을 보자. 프로이트는 성적 농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음담패설을 듣는 사람은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자신의 표상 속에서 완전하고도 직접적인 음담패설로 재구성해 낸다. 음담패설로 직접 표

현되는 것과 듣는 사람에게서 그로 인해 자극되는 것 사이의 불균형 관계가 커질수록 농담은 더욱 세련되게 마련이다.¹³⁾

『촌담해이』에는 많은 성적 관계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듣는 사람이 다소 느슨한 표상을 통해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치노호첩>의 경우, 독자가 도상적·물리적 약호를 성적 약호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며 지적인 성적 상상의 공간을 포함한다. 물론 이런 약호는 많은 음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된 것을 통해 성적 약호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촌담해이』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담해이』 음담은 특히나 지적 유희를 추동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성적 층위가 진실의 층위와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촌담해이』에서는 성관계를 하는 주인공들의 트릭스터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숨겨지기에, 그의 ‘실재’와 ‘연기’ 사이의 불일치를 파악해내어야 한다. 그의 어리석은 ‘연기’를 통해 이면의 교활한 ‘실재’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연기를 통해 실재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진실의 층위’ 역시 지적 유희를 작동시킨다고 할 수 있다.

『촌담해이』에는 이렇게 성적 행위와 속임수가 함께 등장하는 여러 편의 작품들이 있다. 그것들 가운데에는 <牧丹奪財>처럼 성적 행위와 속임수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층위를 작동시키는 이야기도 있다. <모란탈재>에서 트릭스터는 기생이며 듀프는 이생이다. 이야기의 진행이 트릭스터인 기생의 입장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독자들은 듀프인 이생에게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속임수가 드러나기 이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일련의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이 이야기의 모의와 속임수 사건은 특히 여러

13) 프로이트저, 임인주 역,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 책들, 1997, 134-135면.

개의 세부적인 서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속임수의 드러남 부분에서 밝혀진 의도를 반영해서 모의 단계를 서사 프로그램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된 주체는 트릭스터인 기생이다.

- PN1: 술과 음식으로 이생을 위로하다
- PN2: 이생과 사통하다
- PN3: (계집종에게) 음식을 지극하게 대접하게 하다
- PN4: 이생의 자물쇠와 열쇠를 맡다
- PN5: 다른 기생이 금비녀와 비단옷을 (아무개 나오리로부터) 받았음을 고하다
- PN6: 이생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받다
- PN7: (정부에게) 비단 장사꾼으로 꾸며 찾아오게 하다
- PN8: 이생으로 하여금 나머지 재산을 모두 털어 비단을 사게 하다
- PN9: 밤을 틈타 비단을 가지고 도망하다
- PN10: 이생의 재산을 모두 빼앗는 데 성공하다

PN1부터 PN9까지는 모두 PN10을 위한 서사 프로그램들이다.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홀수 번호는 모의, 짝수 번호는 속임수 사건에 해당한다. 모의 가운데에는 PN1, PN5처럼 기생 자신이 수행한 것도 있지만 PN3, PN7처럼 자신의 계집종과 정부를 조종하여 수행한 것도 있으며 PN9처럼 함께 수행한 것도 있다. PN2, PN4, PN6, PN8, (PN10)의 속임수 사건을 거치면서 이생의 처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마침내는 빈털터리가 된다. 거시적으로 PN1부터 PN9까지를 모두 PN10을 위한 모의로 볼 수도 있다.

이생의 하락한 처지는 배경 단계에서 설명한 이생의 상황-노자와 행장을 성대 가진 사람-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듀프인 이생이 당한 경제적인

손실은 이어 사회적 지위의 박탈로 이어져 그는 결국 결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모의 단계와 속임수 사건에 연이어지는 속임수의 결과는 이생의 사회적, 경제적 처지를 점차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성적 층위는 사회적, 경제적 층위를 보조한다고 할 수 있다. 성적인 층위와 사회적, 경제적 층위가 만남으로써 여기에는 시사적이며 도덕적인 메시지가 전달된다. 성적 방종은 위신의 하락과 심각한 재물의 손실을 가져 오기에 자제해야 하는 것이 된다.

모란의 의도는 PN10 이후, 속임수의 모의와 속임수 사건이 끝나고 난 후, 이웃집 노파에 의해 밝혀진다. ‘속임수의 드러남’이 있고 나서야 모란의 속임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란의 속임수로 인해 만들어지는 서사 프로그램은 그녀의 의도를 문제삼는, 진실의 층위를 구성한다. 트릭스터인 모란의 각 모의 단계별 의도가 숨겨지기에, 독자들은 그것을 궁금해 하고, 유추해야 한다. <모란탈제> 이야기 본문은 독자가 모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 유희로서의 측면을 가진다.¹⁴⁾

『춘담해이』의 이야기 본문에는 성적 약호가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은 도상적·물리적 약호에 의존하는 하위 약호이다. 도상적·물리적 약호들을 성적 약호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오락적이면서도 지적인 작업이 된다. 따라서 성적 층위를 오락적 요소로, 그 외의 층위를 도덕적 요소로 분리·환원하기가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춘담해이』의 이야기 본문이, 성적 쾌감을 야기하는 오락적 요소들과 함께 지적, 도덕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춘담해이』의 성소화는 ‘性’과

14) 황인덕은 『춘담해이』 수재 소화들의 특징으로 “소화들의 즐거리가 길기 때문에 가볍게 읽힐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황인덕, 『한국기록소화사론』, 태학사, 1999, 91면. 『춘담해이』 수재 소화에서는 성적 층위, 진실의 층위, 사회적 층위가 혼재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각편들의 길이가 긴 것이다.

함께 지적 작용인 ‘話’에도 초점을 두고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논평에서 사회적 위계의 도래

<치노호첩>와 <모란탈재>에서는 트릭스터가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치노호첩>에서는 속임수의 목적은 성관계이며 <모란탈재>에서는 성관계와 재산의 탈취이다. 이 본문들에서 독자들은 트릭스터인 종과 기생의 입장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서사를 읽기 쉽다. 특히 <치노호첩>에서 본문에 작동하는 성적 층위는 독자들에게 성적 환상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독자를 종인 트릭스터의 신체적 능력, 성적 경험에 동일시하게 한다.¹⁵⁾ 그러나 이 성소화는 본문뿐만 아니라 논평을 덧붙이고 있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논평은 다음과 같다.

태사공은 말한다.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워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신 같고, 큰 사기꾼은 신의가 있는 듯 하다’고 하더니, 바로 이 종을 두고 이르는 것이도다! 진실로, 선비가 법도로써 가정을 바르게 하고 일찍부터 간사한 사람을 분변하였다면 어리석은 종이 가정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길이 틀림없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집안에서 어른으로 아랫사람을 부리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면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찌 알지 못할 리 있겠는가?”¹⁶⁾

15) <치노호첩>을 읽어나가는 독자는 트릭스터인 종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종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쉽다.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의 즐거움은 특히 성소화의 경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독자들이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성적 욕망의 대리 충족을 경험할 수 있다.’ 신동훈, 『문헌육담과 구전육담에 담긴 성의식』, 김선풍 외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88면.

16) 太史公曰 知人最難 大姦若忠 大詐若信 其癡奴之謂乎 苟使士人正家以法 辨奸

논평자는 옛말을 빌려와 “크게 간사하면 충직스러운 듯하다.”고 하며 첩과 종을 아울러 비판하고 있다. “사람을 아는 것[知人]”의 어려움이나,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신 같고, 큰 사기꾼은 신의가 있는 듯 하다[大姦若忠 大詐若信].” 혹은 “크게 간사하면 충직스러운 듯하다[大奸似忠].” 는 말들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정보이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견해이다. 이러한 문화적 약호는 유교 이데올로기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문화적 약호는 그것을 해호(解號)하는 유교적 주체를 상정한다.

이어서 태사공은 법도를 다하지 못한 선비를 비판하고 있다. 본문에서 중시되는 것은 하인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신체적 능력과 그로 인한 성적 욕구의 충족이다. 이렇게 본문이 성적 유희 속에서 하인인 트릭스터와의 동일시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면 논평은 사회적 위계를 바로 세우는 데 할애되는 듯하다. 논평은 선비의 본분을 통해 본문을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본문에서 무화되거나 전도되었던 사회적 위계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문과 논평 사이에는 일종의 전도가 나타난다.¹⁷⁾ 트릭스터 중심으로 독해되면서 본문에서 무화되거나 뒤바뀌었던 신분적 위계가 논평에서 제자리를 잡는 것은 <모란탈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심하도다! 뛰어난 미모를 갖춘 것들이여! 그토록 요염한 자태와 묘사스러운 말재간으로 처음에는 슬그머니 꼬여 교태를 부리고 재물을 아끼는 척하다가, 중간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체하며 기묘한 계고를 부려 속이더니, 마지막에는 선비를 안심시켜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도망

於早則必不啓癡奴之瀆亂矣 長於家位於下者 可不知所戒哉. <痴奴護妾>

17) 이야기의 본문과 논평의 대립적 측면에서 대해서는, 류정월, 「문헌 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417-443면 참고.

쳐 패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아아, 슬프도다. 진실로 애초에 거절하여 멀리해야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필경 그 구렁텅이를 피할 수 있는 자 드물지니, 가히 삼가고 조심해야 할지어다.”¹⁸⁾

본문에서 모란은 교묘한 트릭스터로서 연이어지는 속임수의 의도를 숨긴 채 이생의 재산을 조금씩 빼앗는다. 이생는 어리석은 듀프로서 연이어지는 속임수에 계속 속으며 처지가 하락된다. 본문에서는 트릭스터의 의도가 숨겨지기에 모란의 의도를 재구성하면서 읽을 때 서사적 긴장감은 극대화된다. 반면 이야기의 논평은 숨겨진 속임수의 의도를 모두 드러내면서 모란을 도덕적으로 비판한다. 모란의 행적이 ‘심하다[甚]’라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이생의 어리석음은 탄식[噫]할만한 것으로, 정서적 감정을 수반하며 도덕적 비판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본문을 오락적으로 독해함으로써 트릭스터와 듀프 사이에 무화되었던 사회적 위계가, 논평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논평은 이렇게 트릭스터를 비판하고 양반으로써 할 일을 강조함으로써 양반의 위신을 재정립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 나타난 진실의 약호는, 하나의 해석학적 약호로 작동하면서 텍스트의 비밀스러운 지점들을 통해 이야기의 귀결을 끊임없이 궁금하게 하는 직선적 서사를 구성한다.¹⁹⁾ 우리는 트릭스터인 종의 정체나 기생의

18) 太史公曰 甚矣 尤物之惑人也 妖姿俊說 始以狐媚矯情節儉 中以固愛奇謀詭計 終以奪財使生信而不疑 終至敗亡 噫 苟不辨之於早 拒而遠之 能不入於陷人抗者 幾希 可不慎哉, <牡丹奪財>.

19) 발자크의 단편 「사라진느」를 분석하면서 바르트는 약호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해석학적 약호>는 신비로운 수수께끼와 그 해결을 결합하는 기능을 가진 단위들의 총체이다. <의미적 약호>는 테마장들을 형성할 수 있는 내포적인 기표들의 총체이

의도를 궁금하게 여기며 서사를 긴장감 있게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논평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약호는 독자에게 친숙한 다른 약호-여기에서 유교적 약호-를 교차시키면서 유교적 주체를 호명한다. 텍스트에서 트릭스터의 속임수가 발견되고 도상적 약호 밑에 숨겨진 성적 약호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오락적, 지적인 요소를 구성한다면 논평에 나타난 문화적 약호는 도덕적, 교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춘담해이』 논평에서 이야기 본문의 오락적 요소에 대한 재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논평이 모든 이야기 본문의 요소들에 대한 논평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오락과 도덕의 상호 작용을 언급하는 결론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될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교훈과 유희의 상호 존속

2장에서는, 이야기 본문에서 도상적 언어의 해호화 과정과 트릭스터의 정체 혹은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 지적 유희가 개입함을 언급했다. 3장에서는, 논평에서 트릭스터가 야기하는 오락적 요소가 아니라 듀프가 입은 손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반의 법도가 강조되고 도덕적 메시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를 고려하면, 『춘담해이』의 본문과 논평 모두에 성소화가 가지는 지적 자극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지적 유희로, 논평에서는 선별적인 요소에 대한 도덕적 코멘트로 성적 쾌감은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서문을 통해 성소화에서 도덕 혹은 교훈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다. <상징적 약호>는 상징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곳으로 복수가치적이고 회귀적인 입구들을 가진 부분이다. <행위적 약호>는 인물들의 행위와 동작들을 시퀀스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문화적 약호>는 과학적 혹은 도덕적 권위에 기반한 집단적이고 익명인 판단들의 그물망이다. 뱡상 주브 저, 하태완 역, 『롤랑 바르트』, 민음사, 1999, p.67.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그렇다면 그 교훈됨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로 ‘모란’의 속임수를 간파해 낸다면 가정에서 여색에 침혹함이 적고 부부간의 윤리가 바르게 될 것이며, ‘어리석은 하인’의 속임수를 살핀다면 집안에 혼란한 질서가 없어져 상하의 분별이 안정될 것이며, ‘미치광이 하인’이 중매한 이야기에서는 주인을 보좌하는 충성심을 얻을 것이고, <두더지 혼인> 이야기에서는 평안함과 위태로움의 분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을 다스림에 그 은혜를 잃는다면 ‘사미승’이 흥시를 훔친 일이 무어 괴이할 것이며, 은혜를 받고도 갚지 않는다면 ‘교활한 토끼’의 송사를 어찌 원망할 수 있으리오. ‘홍선’이 ‘天帽’를 맹신하고 致義가 雙口를 몰아내고, ‘혜능’이 ‘연화’에게 목을 매인 것들은 모두 해괴한 풍속을 경각시키는 거울이니, 그로써 수신을 하면 몸이 닦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로써 제가를 하면 집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그로써 미루어 천하에 통하게 되면 어디에 간들 그 공이 미치지 않을 것이겠소. 옛날 성현이 모범을 드리우고 가르침을 세운 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이오”²⁰⁾

모란의 속임수, 어리석은 하인의 속임수, 미치광이 하인의 중매, 두더지의 혼인, 감을 훔친 사미승, 천모를 맹신한 흥선, 연화에게 목을 매인 혜능의 이야기는 모두 『촌담해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사건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이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산출해 내는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교훈의 산출 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듯

20) 其爲教也奈何 苟能辨牧丹之詐 則內無色荒 而夫婦之倫正矣 察癡奴之僞 則家無亂政 而上下之分定矣 狂奴行媒 輔主之忠得矣 鼯鼠圖婚 安危之分著矣 撫少失恩則何怪乎 沙彌之偷柿 受恩不報 則奚怨乎 狡兒之決訟 以至洪善之妄信天帽 致義之虛逐雙口 慧能之係頸烟花 皆駭俗之殷鑑也 以之修身 則身不得不修 以之齊家 則家不得不齊 推而達之 天下安往而不致其功哉 古者聖賢垂世入教之言 亦不過如斯而已. 「自序」.

하다.

찬집자는 부정적 사건을 통해 긍정적 교훈을 산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창가(娼家)의 이야기는 가정(家庭)의 이야기로, 두더지와 토끼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로, 사미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에서 속임수에 속은 인물들, 즉 듀프들이 맞이하는 부정적 결말은 독자들을 ‘경각’ 시킨다. 이 텍스트에서 교훈은 해석의 층위가 이동되고 주인공 운명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도출되는 것이다. 이들 소화의 교훈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도출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서문의 논리에 따르면 소화에서는 부정적 형상의 인물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일에는 정밀하거나 거칠거나 할 것 없이 지극한 이치가 존재’²¹⁾하기 때문에 ‘비록 비천한 일을 다루고 견강부회한 말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루는 사건이나 인물의 특성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태도 혹은 능력이다.

잠깐 강희맹이 쓴 『태평한화골계진』 서문을 참조해보자. 그는 이 책이 명성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하는 서거정에게, 이 책을 보게 되는 후대 사람이 ‘만약 영(郢)나라 사람이 쓴 것을 연(燕)나라 사람이 이해한 것처럼’한다면 웃음거리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²²⁾ 그에게 『골

21) 無事精粗 至理斯存, 「自序」.

22) 若如郢人書而燕人解……不但付之嘻笑而已也. 「滑稽傳敘」, 『郢人書而燕人解』는 이는 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외저설좌(外儲說左)」 상(上)에서 인용한 것이다. 초(楚)나라의 수도 영(郢) 사람으로 연(燕)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자가 있었다. 밤에 편지를 쓰는데 불이 밝지 않았으므로 하인에게 불을 밝히라고 지시하고는 자신도 그만 실수로 그렇게 쓰고 말았다. 뒤에 연나라 재상이 편지를 받고 그것을 설명하여 말했다. “불을 밝히라고 한 것은 밝음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밝음을 존중한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여 임용한다는 것이다.” 연나라 재상은 왕에게 아뢰었고, 왕

계전』의 교훈은 독자들의 적극적인 탐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된다. 『촌담해이』의 서문에서 창랑가(滄浪歌)의 이치를 이야기한 것도 그것들이 모두 ‘自得’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이치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촌담해이』는 부정적 사건과 부정적 인물의 형상화가 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화의 자유는 오락적 요소를 얼마든지 끌어들이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강희맹 자신의 말은 텍스트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 역설적으로 오락적·유희적 요소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²³⁾

강희맹이 쓴 이 자서를 통해 우리는 양반들이 이야기를 향유하는 과정을 하나의 가설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촌담해이』의 자서에서 강희맹은 “거사로 한가로이 지내면서 촌노인네와 우스개 소리를 나누다가 그 중 입을 벌리고 꺾꺾 웃을만한 이야기들을 모아 글로 쓴 것”이라고 저작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한가로이 지내는 것[居閑]’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기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태평한화골계전』이나 『어면순』, 『속어면순』, 『명엽지해』의 序跋文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최초 동기인 한가로움에서 유희가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된 유희는 유교적 틀 속에 위치 지어진다. 이 틀의 반복은 아마도 다시 한가로움을 불러올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소화집의 오락적·성적 요소들은 그

은 매우 기뻐하였으며, 현자(賢者)를 많이 등용하여 나라는 잘 다스려졌다.

23) 『촌담해이』는 이야기의 본문에서는 오락적 요소들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이와 함께 지적·도덕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자서에서는 교훈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의 몫을 열어둠으로서 오락적, 유희적 요소들의 공간을 확보한다.

것이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들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성적 언어의 사용이 지적 유희를 작동시키며, 사회적·경제적 층위는 그것에 성적 의미 외에 시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춘담해이』의 성소화는 노골적·본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적·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논평에서는 텍스트의 일부에 대해 논평하는 과정에서 본문에서 무화된 사회적 위계,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적 사회의 위계가 다시 강조된다. 음담이 가지는 자극의 양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춘담해이』라는 텍스트에는 음담으로 대표되는 유희가 유교적 틀 속에 위치하게 되는 과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유교적 틀 속에서 발견되는 교훈은 인물의 선악을 분별하는 데 귀속되는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질서와 균형, 보상과 응보 같은 규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훈은 한가로움과 유희 그리고 유교화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우주적 질서로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론에서 본문과 논평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성소화를 전달하는 본문을 살펴본 결과, 음담이 양반 문화 속에 통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춘담해이』가 본문에서 억압된 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성적 유희만을 전달하고 있으며, 논평에서는 유교적 교훈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도식화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본문과 논평을 함께 고려할 때, 논평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위계의 교정은, 모든 차원에서 유교적 질서를 읽어내고 내재화하는 작업으로 확대된다고 말할 수 있다.

논평에서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춘담해이』가 교훈을 위해 만들어진 텍스트라고 볼 수는 없다. 『춘담해이』를 저술하는 작가의 태도 역시 이야기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

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오락을 위한 공간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았다. 교훈 속에서 유희가 도출되고 유희 속에서 교훈이 도출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촌담해이』라는 텍스트이다. 엘름슬레우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촌담해이』에서 유희와 교훈의 두 항은 양립가능하며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상호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촌담해이』는 음담을 말하지만 그것은 지적 유희로서 가능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 독자에 따라 지적·교훈적 해석이 가능하기에 음담을 말하고 향유하는 것에는 별다른 거리낌이 없다. 논평자는 이 음담을 도덕적 시각에서 정리한다. 음담을 지적·도덕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기에 자서에서 본 것처럼, 음담의 향유는 '자득'의 능력이 있는 주체에게 진리로 가는 또 다른 길이 된다. 그렇다고 『촌담해이』의 오락적 요소들이 교훈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항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논평이 배제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의 잉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유희와 교훈의 상호 존속이 가지는 유의미성에 대해 조금만 더 언급하기로 하자.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가능하다. 하나는 유희와 도덕의 상호작용이 도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양상이다. 이것은 성소화의 유교적 향유 방식을 살핀 이 논문에서 암시된 것처럼 성적 차원 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유교적 질서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소화 뿐만 아니라 일상과 세계를 유교화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유희와 교훈의 상호 존속이 지속적인 유희의 탐구를 합리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교적 질서가 어디에서나 확인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24) 하나의 항이 다른 항을 전제로 하며 그 역도 참인 쌍방 존속을 엘름슬레우는 상호 종속(*interdependance*), 하나의 항이 다른 항을 전제로 하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닌 경우를 규정(*determination*), 두 개의 항이 양립 가능하지만 서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성좌(*constellation*)라고 부른다.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79면.

확인하는 것이 주체에게 달린 것이라면 텍스트 내용의 오락성 자체는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화를 비롯한 유희적 텍스트들의 위상을 높이지는 않더라도, 유교적 질서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 이러한 생각이 만연한 것은, 15세기와 16세기 초, 소화집이 다수 출현하게 된 간접적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유희와 교훈의 상호 존속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는 조선 초기 다른 소화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및 다른 장르 텍스트들의 쾌락적 독서 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맹, 『춘담해이』, 고려대본 (김기동 편, 『한국문헌설화전집』7, 1981, 1-415면), 71-84면.
- 박경신 대교·역주, 『태평한화골계전』, 국학자료원, 1998. 1-605면.
- 신귀선·유화수·이월영 역,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1-625면.
- 이가원 편역, 『골계잡록』, 민중서림, 1950. 1-626면.
-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강대학교 도서관 DB.
- 홍만중 저, 정용수 역, 『고금소총·명엽지해』, 국학자료원, 1998. 1-444면.
- 김선풍 외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1-368면.
- 김현룡, 「춘담해이고」, 『한실이상보박사 회갑기념논총』, 1987. 1-954면.
- 류정원, 「문헌 소화의 구성과 의미 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66면.
- _____, 「문헌 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417-443면.
- 정용수 『사숙재 강희맹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1-221면.
- _____, 「춘담해이와 강희맹 문학」, 『成大文學』 27호,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157-174면.
- 황인덕, 『한국기록소화사론』, 태학사, 1999, 1-376면.

- 그레마스 저, 김성도 편저,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1-461면.
벵상 주브 저, 하태완 역, 『롤랑 바르트』, 민음사, 1999, 1-205면.
안 에노 저, 홍정표 역,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2003, 1-232면.
프로이트저, 임인주 역,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 책들, 1997, 1-334면.
Bauman, Richard, *Story, Performance, and Ev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1-130.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niv. Press, 1976, pp.1-354.
Raskin, Victor, *Semantic Mechanisms of Humor*, Kluwer Academic Publishers Group, 1985, pp.1-284.

ABSTRACT

The Interaction of pleasure and moral in Chondamhaey[村談解頤]

Ryu, Jeong-Wol

As a collection of funny stories, Chondamhaey[村談解頤] incorporates moral and philosophical evaluations of events or characters in those stories. Do the stories represent only pleasure whereas the evaluations and a introduction only morals? This paper studies how the text combines 'pleasure' and 'moral' in the text. This is important because the text was read by yangban[兩班] who intended to moral subject but included a lot of obscene stories.

The events of the stories in Chondamhaey[村談解頤] have something in common, the sexual relationship and the use of trick. This paper considers the codes of interpretation at the two events. The sexual relationship is represented by an iconic code which needs to decode. And the identity and intention which is hidden by tricksters need to reveal. The process of decoding and revealment operates the intellectual play. The obscene stories can function as a social warning.

The evaluations in Chondamhaey[村談解頤] focus on the immoral aspect of tricksters and the duty of dupes as yangban. Though the evaluations, the yangban reestablishes the dignity which is lost at the level of stories. The introduction says that all events have the principle and the truth and finding them depends on the ability of readers. This thought makes way to escape the blame that undesirable events and characters are figured in the text. Moreover the free of figure makes room for entertainments.

We can the process that the moral produces the pleasure and the pleasure produces the moral in Chondamhaey[村談解頤]. Hjelmslev called this kind of relation 'interdependance'. I mean by this term that the pleasure and the moral coexist in the text and one is a precondition of the other.

Key Words pleasure, moral, Chondamhaey[村談解頤], obscene stories, evaluations, introduction, code, trick, trickster, dupe, intellectual play, social warning, reestablishment of dignity, interdependence.

논문투고일 : 2009. 10. 18
심사완료일 : 2009. 11. 22
게재확정일 : 2009. 12. 04